

강진군, '어머니 손맛' 묵은지 지역 특산물로 키운다

음식 명인·업체 관계자 등 33명 산업화 사업 추진회의 개최 우수 먹거리 육성 가능성 확인

강진군이 묵은지를 지역 대표 특산물로 육성한다.

강진군은 지난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묵은지 산업화 사업 추진 회의를 열었다. 묵은지를 지역 대표 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의 자리다.

회의에는 묵은지 산업화 사업 신청자 33명이 참석했다. 강진에서 손맛으로 이름을 날린 실력자들 30명, 업체 3개소 관계자들이다.

이날 회의에서 군 관계자는 사업취지와 각종 묵은지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참석자들은 강진 묵은지 명칭 선정 및 상표(BI) 제작에 대해 열띤 토

론을 벌였다.

묵은지 판매(직판, 통신판매, 택배) 조건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신청자는 영입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각 개인에게 영입신고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 및 용도변경허가 용역비 등을 지원한다.

강진군은 묵은지 포장재 제작, 역량 강화 교육, 판촉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 신청자는 제품 판로를 확보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묵은지 제품 생산에 들어가게 된다.

강진군은 사업 추진에 앞서 수요조사,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신청자 면담, 브랜드 개발을 역을 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업신청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각종 지원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해 묵은지 특산물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묵은지 산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강진 묵은지가 인근 여주시 들산 갖김치와 수위를 다투



묵은지는 김장김치의 맛을 느끼게 하는 별미김치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는 특산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1차(배추재배), 2차(배추가공), 3차(관광, 외식)를 아우르는 6차산업 수익모델이 갖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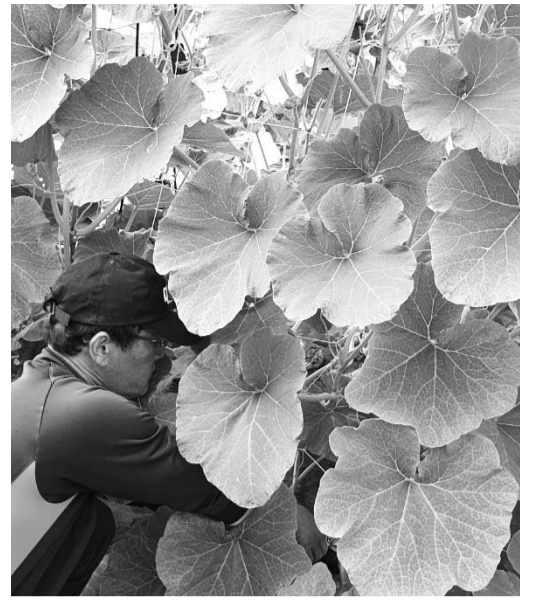
기를 기대하면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남도에서도 손맛 좋은 곳으로 손꼽히는 강진에서 우수 식물을 관광상품으로 육성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강진을 대표하는 특산물 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묵은지는 오래된 김장 김치라는 뜻으로 김장을 하기 전에 양념을 강하지 않게 담가 저온에서 6개월 이상 숙성 저장하여 따뜻한 계절에 김장김치의 맛을 느끼게 하는 별미 김치이다. 일반적인 김장배추김치보다는 조금 짜게 담그는 전라도 지방의 김치다.

숙성 기간이 짧은 묵은지는 찌개에 이용하고 오래된 묵은지는 한번 씻어서 찜이나 찜 요리에 이용한다. 묵은지는 오래 숙성 저장할수록 맛있고 깊은 맛이 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함평 특화작목인 '함평 단호박'을 수확하는 농민.

함평 단호박 본격 출하 230 농가 한달 이상 빨리 출 3900t 80억 소득 기대

함평군 특화작목인 '함평 단호박'이 이달부터 본격 출하된다.

29일 함평군에 따르면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함평 단호박이 일반적인 단호박 출하시기(6월말~7월초)보다 한 달 이상 빨리 조기 출하된다.

그간 함평군이 지원해 온 재배기술 보급, 시설하우스 지원, 난방 유류비 지원 등의 영향이다.

단호박 공급시기를 앞당겨 시장을 선점한 만큼 농가소득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함평군 단호박 재배규모는 230농가 166ha로, 연간 3900t 이상의 단호박이 생산되고 있다. 이마트, 자연드림, 온라인 마켓 등을 통해 개당 2500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연간 79억원 규모의 농가 소득을 안기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단호박이 함평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만큼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전국에 유통하고 있다"며, "단호박을 활용한 가공 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상품 다양화를 통한 농가 소득 확대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kwangju.co.kr

역도와 청자가 만날때... 강진군, 세계대학역도선수권 대회 기념품 제작 공모전 개최

강진군 2020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승욱 강진군수)는 '2020년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기념품 제작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모전은 세계 대학 역도인들의 축제인 '2020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제작을 위해 추진된다. 강진에서는 올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40여 개국 500여 명의 참가 속에 대회가 개최된다.

공모 대상 품목은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시에 각각 참가자에게 호평을 받은 강진 청자 컵과 같은 실용성 높은 청자 소품부터, 청자로 제작 가능한 액세서리다. 강진군은 이번 대회와 강진의 특색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창의적인 청자 기념품 제작을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에 주민등록 주소지와 사업자 등록이 된 청자 제작·판매자에게만 응모자격이 주어진다. 다음 달 9일까지 홍보 기간을 거쳐 29일까지 신청받는다.

대회 목적과 강진의 특색, 실용성과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홈페이지(gangjin.go.kr)를 참고하면 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신스대한 강진군청 민원실 복장 강진군은 군청 민원실 직원들이 5월1일부터 단정하고 새로운 민원복을 입고 미소와 친절로 군민을 맞이한다고 29일 안내했다. <강진군 제공>

나주시, 농기계 종합보험료 '50→80%'로 상향 지원

농기계 손해·신체사고 대인·대물보상...농협서 연중 신청

나주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사고에 의한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비율을 상향했다.

가입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승용관리기 등 농기계 12종을 소유·관리 중인 만 19세 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농기계 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손해 보상을 비롯, 신체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1년이다.

농기계 1대당 1개 계약이 원칙이며, 보장항목은 농기계 손해, 자기 신체 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적재농산물 위험 담보 특약 등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예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해주는 농기계 종합보험을 영농철 이전까지 반드시 가입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댐 주변 불법행위 집중단속 군, 5월 한달 적발 시 강력 처벌

장흥군은 장흥댐 수질유지와 환경관리를 위해 5월 한 달 간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일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어로,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개간, 취사, 야영, 세차 등의 행위다.

장흥군은 청원경찰, 특별사법경찰, 지역주민 공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불시 야간단속도 진행하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한다.

군 관계자는 "장흥댐은 전남 서남부 9개 지역의 식수원으로 엄격한 수질유지가 필요하다"며 "상습 위반자는 위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모던 스타일

클래식 스타일

지중해 스타일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